전북대,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출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 지원
호남권 산업체 개술개발·자문…지역발전 기대감

전북대학교 소재·부품·장비 지원센터(센터장 강길선 교수·이하 JBNU 소부장 기술지원센터·사진)가 출범했다. 이 센터는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원천기술 자립 역량과 세계적 기술 우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올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성된 것이다.

이에 전북대는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정부가 공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그리고 기초화학 6대 분야 및 100개 핵심부품 맞춤형으로 기술지원센터를 구성, 분야별 소부장 관련 전북·호남권역 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자문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공과대학 고분자나노공학과의 강길선 교수가 맡고, 6대 분야 및 100개 핵심품목 분야 교수 20여 명이 참여해 각 전문 분야를 담당한다. 필요 산업 분야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서 전공분야를 계속 보강할 방침이다.

세부 과제로는 △호남·전북권역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체 예산홍보 및 신학협력 수요조사 실시(R&D 수요 및 애로기술 등 파악), △산업체 분야별 tool 형성 및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개발 자문, △대학-산업체 간 공동 R&D 계획 추진 및 국고 지원사업 연계, △전주시 탄소클러스터 및 기초화학 클러스터 등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산업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100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해당 분야 전문 교수들의 맞춤형 자문·연구를 통한 끊임없는 현장기술지원, 신규 원천기술 개발, 대학 내에서 잠자고 있는 원천특허·기반기술 발굴을 제시하고 공동 R&D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선 센터장은 "대학과 호남지역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산업의 자립화를 모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사회 참여를 장려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32개 공동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연합체인 '소부장 융합 혁신지원단'이 4월 7일에 출범해 첫 사례로 자동차 분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비전대-한국동서발전 '손잡다'

재생에너지 개발 등 산학협력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5일 대회의실에서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조용호 선교지원처장, 박창열 취업지원처장,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양승훈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박효식 신재생에너지과 교수, 김창현 전기과 교수 등 1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새만금 개발 사업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산학협력 확산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협력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연계 협력 ▲기업 맞춤형 산학협력 교육 포괄 협력 ▲대학생 현장 실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이다.

박일준 사장은 "전주비전대학교의 취업경쟁력은 국내대학 중 '탑클래스'임을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 "동서발전은 LNG, 석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사업구조를 가지며 전주비전대 학생들을 우리나라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영광풍력발전소 현장견학 추진을 시작으로 전주비전대의 전기과, 신재생에너지과와 함께 다양한 재생에너지관련 협력사업(AI, 드론 등) 시행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순직 총장은 "산업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박일준 사장의 혁신적인 업무 성과에 항상 놀랐었다"며 "울산에서 전주까지 산학협력 협약을 위해 방문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총장은 "한국동서발전은 '포스트코로나'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해 우리대학에서 하반기 채용설명회 및 멘토링데이를 개최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코로나19 고용쇼크를 타개하고 전북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양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4월 설립돼 '2030 세상을 풍요롭게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깨끗한 에너지 공급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연 5조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다'

전북교육청,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민주시민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한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5.18 계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학생 중심 활동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대와 대동의 주먹밥 나눔, 학생회 주관 토론회, 5.18 현장 체험' 등의 교육활동과 교과연계 수업 등 계기교육 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

5월 16일과 23일은 '민주야 소풍가자! 세종, 함께 걷다'를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 연구회와 추진단,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돌아보고 당시 전북대학교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 열사의 생애를 따라 걷는 현장 탐방형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한다.

28일은 임종진 사진작가를 초청해 '사진으로 치유하는 5.18 상처'를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도내 교직원,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함께 보고 다시 생각하는 5.18영화제'와 도내 고등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오월, 학생원탁토론'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계획은 변경되거나 축소 운영될 수 있으며, 5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한식조리학교, '떡 제조 기능사' 수강생 모집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올해부터 '떡 제조 기능사'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떡 제조 기능사는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신설한 국가자격증으로 곡류, 두류, 과채류 등의 재료를 이용해 빻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공정으로 떡을 만드는 전문인력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7주간 운영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 국제한식조리학교 5층 동의보감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생은 이보배 조리기능장의 수업을 통해 '떡 제조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다.

민계홍 국제한식조리학교장은 "떡 제조 기능사 과정을 통해 전북도 내에 떡 제조 전문가를 육성하고 떡을 기반으로 한 전통식품과 디저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국제한식조리학교 홈페이지(https://www.ccikchef.com) 혹은 국제한식조리학교 행정실(☎063-230-166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행정직 전입희망자 공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본청에서 근무할 교육행정직 전입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의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탁하고자 교육행정 6~8급 전입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에 교육행정 6급은 모집에 제한이 없으며, 7급은 현 직급 경력 5년 이내인 사람, 8급은 해당 직급 1년 6개월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입을 희망하는 교육행정직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자기소개서, 주요 업무실적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6급의 경우 보고서평가 50%와 면접평가 50%이며, 7~8급은 서류평가 20%, 면접평가 80%로 진행된다.

보고서는 현황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이 주요 평가내용이며, 서류평가에서는 업무실적과 적극성, 면접평가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최종 전입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오는 7월 1일자에 맞춰 인사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